

대중가요의 멜로디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오한승*

*동아방송예술대학 영상음악계열
e-mail:ohs@dima.ac.kr

The Study on Articulation Method for Pop Melody

Han-Seung Oh*

*Dept of Applied Music, Dong-A Institute of Media and Arts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대중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가요의 가창에서 효과적인 가창을 위해 사용하는 멜로디의 가창법, 그 중에서 멜로디의 세부적인 느낌을 크게 좌우하는 대표적인 표현기법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다른 장르의 음악을 가창하는데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았다.

1. 서론

‘가창(歌唱)’이란, 말 그대로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다. 대중가요 가창은 대중가요를 노래하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일상화가 된 대중가요는 대중예술의 한 분야로서 성악이나 판소리처럼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분명히 전통이 있으며 체계화 될 수 있는 어떤 틀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중가요 가창법에 있어서는 사실 그동안 클래식 성악 분야에 있어왔던 체계적인 면이 부족했었다. 또한 클래식이나 판소리와는 달리 너무나도 많은 개성과 다른 장르가 존재하며, 가수들의 가창법이 너무나도 다양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정형화된 가창법을 정립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대중가요 가창에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나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호흡, 발성, 공명 등과 같은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이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그 대신 중요한 표현기법과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중가요 가창법과 멜로디의 표현기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2. 대중가요의 표현기법

대중가요 곡들의 멜로디를 구성하는 음들을 어떻게 연결 처리하는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바로 프레이징(Phrasing-구절처리)와 음절처리

(Articulation!)라고 볼 수 있다. 음악의 최소단위는 ‘음(Note)’이지만 노래의 최소단위는 ‘프레이즈(Phrase-구절)’이다. 프레이즈란 쉽게 말하자면 한번 호흡을 마시고 노래로 불려지는 멜로디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다. 노래에 감정이 실리는 것도 이 프레이즈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노래를 노래답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프레이즈의 첫 음부터 끝 음까지를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이의 멜로디 음들도 한 묶음으로 잘 연결되고 흐를 수 있도록 불려야만 노래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2.1. 레가토(Legato) 기법

전통적인 성악 가창기법 중에서 대중가요 가창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Legato 창법이다. 발라드 스타일이나 느린 템포의 대중가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이다.

레가토(Legato)라는 말은 ‘결합한다’는 의미와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음악에 있어서의 레가토란 음의 결합과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레가토는 두개의 음 이상에 적용되는 용어이며, 이들 음들이 결합되도록 한다는 의미와 연결되

1) Articulation : 음성학에서는 ‘조음’으로 번역되며, 발성기관(후두·인두·구강·비강)이 이루는 형태를 나타낸다. 음악용어로는 한 음을 지속할 때 두 개 이상의 음들 사이의 연결과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악보상의 표시 또는 연주상의 테크닉을 뜻한다. ‘딱딱하게, 부드럽게, 길게, 짧게’ 등 음들을 연주하는데 여러 다른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용어들은 legato, slur, staccato, staccatissimo, accent, sforzando, rinforzando 등이 있다.

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두 개 이상의 음들이 하나로 이어진 것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두 개 이상의 음이 한 덩어리로 모여진 것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Legato란 음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결합된 것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레가토 창법이란 높이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음들을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레가토 창법은 두개 이상의 음에 적용되는 창법이다. 레가토 창법은 연결시킨다는 의미와 결합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창법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개 이상의 음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레가토 창법은 높이가 다른 음들에 적용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 같은 높이의 음들에 레가토 창법을 적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음 높이가 같으므로 가사를 제외하고는 음과 음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레가토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노래의 주요 감정전달은 '모음'으로 하는 것이므로 레가토로 노래를 하며 멜로디를 부드럽게 연결시키는 것은 모음을 얼마나 잘 연결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아, 에, 이, 오, 우 등과 같이 명확하게 모양이 있는 모음들의 경우에는 특히 발음을 필요 이상으로 딱딱하게 끊어서 힘을 주거나 긴장하게 되면 멜로디의 부드러운 연결이 어려워질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멜로디의 흐름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바로 자음들이다. 특히 호흡을 터트리거나 불고 혀를 여기저기에 붙였다 떼었다 하는 이러한 자음의 발음방법은 때론 노래의 흐름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자음은 '최소한'으로 가볍고 짧게 발음해 주는 것이 모음을 더 살리고 흐름을 좋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음을 가볍게 발음해주는 것은 목 주변의 불필요한 긴장을 빼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대중가요 곡들에는 성악곡처럼 레가토를 표시하는 이음줄이 따로 표기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작곡가가 가수에게 어느 정도는 가창 표현기법적인 자유를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브레이크(Break : non-Legato) 기법

대중가요에서 브레이크 기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클래식 창법 용어의 논 레가토(non-Legato)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논 레가토는 '레가토가 아닌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스타카토(Staccato)와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레가토는 음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스타카토는 음이 끊어지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논 레가토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레가토나 스타카토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논 레가토는 음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타카토와는 다르고, 음이 짧게 끊어지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게 때문에 스타카토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논 레가토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은 분명하여진다고 할 수 있다. 논 레가토는 음을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음을 자르는 것도 아니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다. 논 레가토는 두 개의 음에 작용하되 음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의 음에 작용하되 스타카토와 달리 소리가 길게 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 레가토는 레가토와 스타카토의 중간에 해당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대중 가요 곡들에 있어서 스타카토 창법은 거의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으므로 스타카토 창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논 레가토 창법을 적용하여 노래할 곳에서는 레가토 창법으로 노래하는 것과 같이 되어도 안 되고, 스타카토 창법으로 노래하는 것과 같이 되어도 안 된다. 논 레가토는 레가토와 다르기 때문에 음이 연결되도록 노래하지 않아야 하고, 스타카토와 다르기 때문에 음이 짧게 끊어지도록 노래하지 않아야 한다. 앞의 음과 뒤의 음이 가깝게 되도록 하기는 하되 레가토 창법으로 노래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고, 앞의 음과 뒤의 음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도록 하기는 하되 스타카토 창법으로 노래하는 것과 같이 하지 않는 것이 논 레가토 창법으로 노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논 레가토 창법은 음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래하는 창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타카토란 원래의 음의 길이의 절반 정도로 끊어서 내는 것이고, 레가토란 음의 길이를 충분히 다 끌어서 내는 것이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태라면 대부분은 레가토 보다는 약간 짧은 길이로 음을 내게 된다. 음과 음이 연결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레가토로 노래를 하면 음과 음 사이에 전혀 끊기는 느낌이 없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래할 때 멜로디를 더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것이다. 악보에 아무런 표시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멜로디에 레가토를 반영하면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면 더 부드럽고 감정전달이 잘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멜로디의 흐름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그릴 때 음을 끊어서 생각하면 노래하기가 어려워지며, 호흡의 흐름을 고르게 주는 것도 더 어려워지게 된다.

논 레가토는 전통 성악곡에서도 표시하는 기호가 없으며 대중가요 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논 레가토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창법에 관한 다른 지시가 없으면 논 레가토 창법으로 노래해야 한다. 왜냐 하면 논 레가토 창법은 악곡 전체를 통제하는 기본적인 창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당한 창법을 적용해서 노래하도록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2.3. 벤딩(Bending) 기법

대중가요를 노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징적이면서 중요한 점이 바로 ‘벤딩’이다. 속칭 ‘꺾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영단어의 ‘Bend’의 뜻인 ‘구부리다’와 매우 닮아있다.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에는 음들이 정확하게 그 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래를 할 때는 악보상의 음들을 피아노를 치듯 정확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아래쪽에서 끌어올리듯 하면서 음을 내는 경우가 많고, 간혹 위에서 아래로 꺾어 내리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인접한 반음이나 한음 아래에서 꺾어 올려 주는데, 얼마나 빠르고 간결하게 혹은 천천히 크게 꺾어 올리는지에 따라서 많은 느낌의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가요나 팝에서는 상당히 빨리,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가볍게 꺾어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빨리 음을 꺾게 되면 노래에 세련되면서 감정이 이입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반면 트롯트 가요와 같은 스타일에서는 천천히 크게 밀어 올리는 듯한 묵직한 벤딩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구성지며 여유 있는 느낌이 있다.

가요 악보에는 이 벤딩이 전혀 적혀 있지 않으나 음반을 들어보면서 비교해 보면 분명히 이 벤딩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언제 멜로디의 음들을 꺾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정해진 법칙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프레이즈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음들 또는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는 음들(16분음표 보다 여유 있는 8분음표, 4분음표, 2분음표 등), 리듬이 싱크페이션(syncopation)된 음들의 경우에 장식처럼 쓰인다.

이 벤딩의 타이밍과 음정, 그리고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노래가 많이 불안하게 들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결론

대중가요 가창기법을 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들 중의 하나가 바로 용어적인 문제이다. 대중가요에는 가창기법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악보 표기에 있어서처럼 가창기법에 관한 용어도 동일한 상황에서는 클래식 성악에서 용어를 빌려서 쓰는 것도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중가요를 가창하는데 유용한 가창기법을 소개하고 그것이 클래식에서도 사용되는 것은 용어를 함께 사용하였다.

레가토 창법이나 논 레가토 창법은 클래식 성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서 대중가요의 가창에도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용어들은 클래식 용어의 느낌이 너무 강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논 레가토 기법을 브레이크 기법이라고 하듯 대중음악, 대중가요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용어의 정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대중가요의 가창법은 가수마다 개성의 차이와 자유로운 해석이 너무 다양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나, 벤딩 기법처럼 대중음악에서 많이 통용되는 용어들을 정리하여 대중가요 가창법 또는 표현기법에서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용음악 분야 연구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차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1] 맹삼주, “20세기 새로운 가창기법과 그 기보법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2] 편집부, “과풀러음악용어사전”, 삼호뮤직, 2002
- [3] 심성태, “음악용어사전”, 현대음악출판사, 1996
- [4] Gloria Rusch, “Professional Singer’s Handbook”, Hal Leonard, 2001